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5/6월호
2021
증보판



Folk Tale of Flower 20"x15' Collage on paper by Soo-Young Hong Kim(김수영)

CONTENTS

한인회소식 NM 한인여러분! 윤태자: 2	수필 구름 잡기 나정자: 14
한인회소식 영사업무/장학금수여/참전용사: 3	기도 기도문 구경범 : 16
VOA 미나리 한국영화(윤여정)수상: 4	토막글 어머니의 기도(최효섭) : 16
지역소식 확장하는 인텔: 6	칼럼 비폭력 대화를 제안하며 김민순: 17
지역소식 할랜드 내무장관/김목사님택 경사: 7	영어상식 영어이야기 (14) 이상목 : 19
가정의 달/편지 감사합니다 이성빈: 8	선교 에콰도르-졸업은 새로운 시작 임동섭: 21
COVER STORY 콜라지 아트란? 김수영: 9	토막글 초라한 기도(최효섭) : 24
칼럼 기적은 강물처럼 나정용 : 10	선교 인도의 선교지 소식 유영자 : 25
칼럼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 김기천 : 12	VOA News 인도의 코로나 최고치 : 26
수필 고추 이정길 : 13	광고 한인교회/ 한인비지니스 : 27-30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윤태자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뉴멕시코 교민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가시질 않았지만 새봄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한인회에서도 연세드신 어버이 회원분들은 예방주사를 거의 다 맞으셨고 2주에 한번씩이라도 도시락을 나누며 얼굴을 볼 수 있고 반가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에는 행정업무로 2월에는 회관보수를 위해 여러군데 견적을 뽑느라고 분주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부엌바닥 교체가 시작되고 2월말에는 지붕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3월초부터 한국학교 교실공사가 시작되었고 3월중순에는 회관의 형광등을 모두 LED등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월말에는 부엌창고와 오피스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중순에 부엌 캐비닛 설치를 하였고 한주일후 Counter Top이 설치되었습니다. 4월 28일까지 불필요한 전기선 제거, Fan 교체, 새 페인팅까지 모두 마치고 29일에는 뒷마무리와 청소까지 부회장님과 함께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 견적뽑아서 부엌바닥공사부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돕는 손길들이 보태지며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며 기도가 끊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 한국학교 교실 4000불
- 회관전체 지붕방수 6000불
- 회관내부 전체 페인팅 재료비 600불
- 화장실 부엌 타일 교체 3500불
- 부엌 캐비닛 교체 3600불

위의 견적은 54,381불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17,700불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오피스와 창고 만드는데 2500불, LED로 회관



전체의 전등을 바꾸는데 2500불, 수도배관 3군데 교체, Fan 2개 교체 전기선 제거 및 설치등에 대략 1500불 가까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하느라 들어간 금액은 24,200불입니다. 후원자명단 (존칭은 생략)
박순삼- 2000불
양재숙, 조문성, 신옥주(Karen) - 각각 1500불씩



이수신 -1400불
 신광순, 이인, 한영수와 최영미 형제 - 각각 1000불씩
 안교정, 임혜숙, 위점덕, 김영신, 김두남, 정풍자, Mike Cho-각각 500불씩
 이명길, 고덕효, 김길자, 박연복, 이경화, 이정길 - 각각 300불씩
 조은순, 김준호, Song Wood -각각 200불씩
 장상순 - 150불
 유금님, 한명섭, 이선미, 이동천, 이현숙, 윤민자 - 각각 100불씩
 이덕녀 - 75불
 IM Simpson -70불
 감리교회 - 피아노, 프린터기 그외에도 인력으로 후원해주신 문상귀, 이재호, 김경숙, 김진욱, 감리교회 청년부, 형제영씨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리교회 청년부는 주일에배후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들어주셔서 수고해주셨기에 좁은 장소에서 그때그때 무거운 짐을 이리저리로 옮기며 공사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에 외벽이 부서진 곳과 외벽 페인팅 건물뒤쪽의 물받이받침과 간판도 여유가 되면 새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교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원진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자유로이 모일 날을 기다리며 그동안의 한인회소식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멕시코 제 19대 한인회장 윤태자 올림.

6.25참전용사 감사카드

6.25 참전용사들의 Thank You Card가 한인회로 보내져 왔습니다. 보훈병원에 보내진 마스크에 대한 뉴멕시코주지사 미셸 루한의 감사편지도 받았습니다. 보훈병원에 계시거나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께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보내온 마스크는 일인당 30매씩 소포로 개개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2021 년 상반기 순회영사 업무 안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영사 순회 업무를 위해 오는 6 월에 뉴 멕시코 한인회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1 년 6 월 8 일 화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장소: 뉴멕시코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예약 및 위치문의 연락처: 한인회장 윤태자 (505) 234-4306

영사 업무는 당일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이번 순회영사 활동은 코로나 19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순회영사 방문 전 준비서류 및 민원관련 문의:

순회영사 방문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 종류별로 준비 서류 및 정확한 민원수수료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을 미리 확인

홈페이지 주소: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상기 홈페이지 안내사항에도 불구하고 세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대표전화 (213) 385-9300, 내선 221-222 또는 당관 민원실 전용 이메일 (consul-la@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남부연합회에서는 한인 2세들을 위한 꿈나무 키우기와 미래 한인리더로써의 인재발굴을 위하여 처음으로 연합회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였다. 관할지역 13 개 한인회에서 25명의 학생들이 신청하여 2021 년 3월 30일 상임이사회에서 17명의 최종선발자가 발표되었고 뉴멕시코한인회에서는 뉴멕시코주립대학 (NMSU)에 다니는 Margaret Lee가 선발되었다. 서남부연합회 제 1회 장학금수여식이 4월 24일 오렌지카운티한인회관에서 있었다. 이정우 서남부 연합회장 개회사로 시작하여 연방하원위원 김영, 허상길, 박 미셸스틸 연방의원 보좌관, LA 영사관 박민우 동포영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마쳤다. ■

VOA 방송녹취/영화

미 언론 “미나리, 한국 영화계 또 다른 자랑거리”

VOA Korea
조은정 기자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한국 배우가 최초로 수상한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독립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윤여정 씨가 한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영향력 있는 배우로 활동해 온 점을 소개하며, 영화 ‘기생충’에 이어 한국 영화계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미국 이민가정의 삶을 다룬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25일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CNN’과 ‘NPR’ 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윤여정이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오스카 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제목으로 수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NPR’ 방송은 “윤여정이 품위 있게 오스카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한국의 영화와 방송계의 화려한 주연배우인 그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첫 한국인, 두 번째 아시아인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AP’ 통신도 윤여정 씨가 오스카 상을 받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유명 영화, 방송 배우였으며, 1957년 영화 ‘사요나라’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60여 년 만에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씨는 25일 시상식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할머니와 부모의 희생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이야기라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여정] “우리의 진심으로 만든 영화이고 그 진심이 어떻게 통한 거 같아서...”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한국 배우 윤여정 씨가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드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에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젊은 한인 부부와 뒤늦게 합류한 외할머니가 아칸소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힘겹게 정착해 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올해 74세인 윤여정 씨는 '미나리'에서 이민자인 딸 부부의 아이들을 돌보러 미국에 건너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했는데, 지난 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보편적인 가족애를 강조했습니다.

[영화 '미나리' 녹취] "Strong boy, strong boy"
[녹취: 윤여정] "She tries to help them as a babysitter. That was just what all mothers do universally, Greek or Korean or American. I think it's just universal, That's why I think people like this movie."

윤여정 씨는 영화 속의 '순자'가 손주를 돌보는 것으로 딸 부부를 도왔다며, 그리스인, 한국인, 미국인 등 모든 어머니들이 하는 보편적인 일이고, 그래서 관객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리 아이삭 정 감독이 자신의 어린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정 감독은 토론회에서 이 영화를 통해 한국인들이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감독] "Because there is this assumption that people who went to the U.S., one, they left Korea, and secondly, a lot of them went and found a lot



리 아이삭 정 감독이 중앙일보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나리 영화와 자신의 이름에 관해 설명하고있다. (스크린 캡처)

of success, so life there was quite easy."

정 감독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떠난 한국인들이 성공했고 삶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은 '미나리'에 출연한 윤여정 씨의 이번 수상은 한국 영화계의 또 다른 자랑거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앤디 김 하원의원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윤여정 씨의 수상을 축하하며, 영화 '미나리'가 한국계 미국인 가정의 사랑과 관심,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을 구현한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21.4.26 ■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A-1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지역소식

뉴멕시코에서 확장하는 인텔

리오란초에 있는 인텔은 지난 5월3일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공장을 회사의 새로운 “Foveros”기술 글로벌 제조 허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경영진은 Michelle Lujan Grisham 주지사 및 기타 주 및 지역 공무원과 함께 공장에서 열린 야외 기자회견에서 35 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이 투자는 700 개의 새로운 고임금 영구 일자리와 약 1,000 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980 년에 회사가 리오 랜초 공장을 세워 운영 한 이래 지금까지 이곳에서 가장 큰 단일 투자이다.

뉴멕시코는 지역 경제 개발법 (Local Economic Development Act) 자금으로 인텔은 주정부로부터 5 백만 달러, 프로젝트의 재정 대리인으로 산도발 카운티로부터 500,000 달러, 시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리오 랜초 시로부터 250,000 달러를 포함하여 확장을 위해 575 만 달러를 제공 받을 것이다.

Lujan Grisham은 성명에서“인텔이 뉴 멕시코에 35 억 달러를 투자하면 향후 3 년 동안 7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리오 랜초 캠퍼스가 회사의 첨단 반도체 제조 허브로 자리 매김 할 것입니다. 주와 인텔은 40 년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오늘날 혁신적인 경제 개발 도구와 이 기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통해 인텔의 뉴 멕시코 제조 공장에서 새로운 세대의 근로자와 일자리 성장을 축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인텔이 2018 년에 처음 공개 한 Foveros 라는 새로운 칩 패키징 아키텍처를 관리하기 위해 현재 350,000 평방 피트 제조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기술은 컴퓨팅 칩을 서로 겹쳐 쌓아 공간을 훨씬 적게 사용하는 초고속 컴퓨팅을 위한 3 차원 컴팩트 패키지를 만드는 데 기반을두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초경량 초소형 장치에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조 비용과 에너지



(사진설명) Intel에서 주지사가 연설하는 장면(출처: santafenewmexican.com)

소비를 줄인다.

이 회사는 새로운 패키징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작년에 Lakefield라는 최초의 손톱 크기의 3D 스택 칩을 만들었다.이 칩은 높이가 1mm, 둘레가 12x12mm 에 불과하다. 이제 시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Lakefield와 Foveros 기술로 만들 수있는 기타 고급 반도체 장치가 Rio Rancho 공장에서 제조 될 것이라고 Intel 대변인 Linda Qian이 말했다.

인텔의 인력 상황을 보면 2018 년 부터 다시 채용을 시작 하여 작년 기준으로 1,800 명 이상의 직원을 확보했고 최근의 투자로 700 명이 추가 예상되므로 현지 인력은 향후 3 년 내에 2,500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처: Albuquerque Journal 5-4-2021) ■



(사진설명) 인텔의 새로운 “Foveros”기술로 만든 손톱 크기의 프로세서.

지역소식

덱 할랜드, 미 내무장관으로

김기천 목사님 가정의 경사

뉴멕시코주 연방 하원 의원인 덱 할랜드(61)가 미 내무장관 지명을 받고 3월15일 미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이로써 그는 미국의 첫 원주민 출신 내각 장관이자 원주민 정책을 다루는 연방기관의 첫 원주민 출신 수장이 되었다.

상원은 이날 할랜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1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덴 설리번(알래스카), 수전 콜린스(메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4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에 가세했다.



뉴멕시코 공화당 의장인 스티브 피어스 (Steve Pearce)는 “Haaland 의원이 Biden 내각으로 승진 한 것은 우리 주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지만, 에너지에 대한 그녀의 급진적인 입장은 뉴멕시코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Pearce는 성명에서 말했다. “우리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우리 주와 재정 건전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Haaland는 프랙킹,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반대하고 그런 뉴딜을 지원합니다.”라고 말했다.

뉴멕시코주(州) 연방 하원의원에서 내무장관으로 지명된 할랜드는 뉴멕시코주의 라구나 푸에블로 부족 출신 원주민이다. ■

김기천 목사님, 김숙경 사모님 가정에 경사가 있었다. 장남 김명진(김바울)군과 이영재씨, 길윤형씨 부부의 차녀 이정은(이코코)양의 결혼식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대면식으로 지난 4월24일(토) 김기천 목사의 주례로 마쳤다. 한국에 계신 신부측 가족과 알 버커키에 있는 신랑 부모와 노스 켈로라이나에 있는 신랑신부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드린, 코비드-19이 가져다준 특별한 하이텍 결혼식이었다.

Covid-19으로 인해 손님여러분을 초대하지 못한 결혼식이었으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신혼 부부를 위해 여러분께서 축복해 해주실것을 양가 부모님들은 바라고 있다.

김명진군은 Boston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Radiology 레지던트로 듀크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정은 양은 노스캐로라이나 차플힐치과대학을 이달에 졸업한다. ■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가정의 달 /편지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요즘 열왕기 말씀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이 “난 참 부모님 복이 많은 사람이다”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 세 남매는 너무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질서 있는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저 되는 쉬운 일이 아니라 두 분의 엄청난 노력과 서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 져야만 되는 것임을 결혼 5년차에 드디어 깨닫습니다.

멘탈도 강하게 키워주셔서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쉽게 다시 일어나고 주님께 나아져서 감사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와 헌신 보여주셔서 우리 세 남매도 우리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태도를 제대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어릴 적부터 직접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께 사랑받고 자라면서 같이 놀았던 기억대로 제아랑 놀았을 뿐인데, 가는 곳곳마다 최고의 아빠로 칭찬 받네요.

“아들이랑 너무 잘 지낸다”,
“아들이 아빠를 잘 따른다”,
“애가 너무 재밌어 한다”,
“처음 보는데도 우리 애들이 성빈씨 너무 좋아 한다”

전 아버지께 받는 사랑을 아직 미처 다 제아이에게 전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도 벌써 이런 칭찬 들으니 더 겸손해지고 감사하네요. 또 저는 이 칭찬들이 저를 통한 아버지께 드리는 칭찬인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가정에배 드릴 때는 저희끼리 자주 나누는 부모님께

이성빈

펜타곤 공군부 차관보실



대한 감사인데, 직접 감사는 잘 못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시는 사랑과 헌신에 비해 너무 적은 공경과 효도인 것 같아 항상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아들 이성빈 올림.

이성빈 교우의 근황

〈편집부에서 이성빈 교우에게 E-mail로 소식을 문의 하여 아래와 같이 가족의 근황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Virginia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2월에 둘째 아들 출산해서 지금 엄마/아들 모두 건강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찍은 가족사진 첨부합니다 가족 이름은: 이성빈, 김소윤, 이제 (Enoch), 이찬 (Elijah) 입니다.

현재 계급은 대위 (Captain) 입니다. 7월에 소령 (Major) 으로 진급 예정입니다.

직책은 미 공군부 국제관계 차관보실 (Deputy Under Secretary of the Air Force, International Affairs) 에서 대한민국 담당 (Republic of Korea Country Director)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이성빈 올림. ■



콜라지(COLLAGE) 아트(ART)란?



김수영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권사

Collage (콜라지) Art 란 회화 기법의 하나이다. 콜라지란 풀로 붙 인다는 뜻 이고 화면에 종이 조각이나 섬유 등 을 붙여서 재질 감의 변화와 색채, 구 도 등 여러 면 에서 독특한 변화를 가져 오게 만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피카소" 나 "브라크" 등 입체파의 화가들이 시작한 "파피에콜레" 의 기법을 확대 시킨 것이며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나의 콜라지 아트는 색종이로 붙이는 기법을 쓰고 물감과 붓을 써서 정리한 산뜻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의 그림같이 어리숙 하면서도 순수한 선과 화려하고도 강한 색을

만들며 그것이 내 캔버스 위에서 내가 원하는 질감을 만들어 줄 때 무한한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 속의 꽃은 무궁 무진한 모양과 색 과 질감 등 그것들이 모여 마치 합창을 부르는 듯 잘 어울려 질 때 나도 그들의 속으로 끌려 들어 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이 알버커키 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황혼은 황홀하기만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절경 이어서 우리 모두를 감탄하게 만드신다. 나는 이 황혼에 매혹되어 한지를 이용해서 만든 콜라지를 만들기도 했으며 이곳의 특이한 지형 때문에 이런 기이한 풍경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 드리게 된다.

사진과 화가 보충설명 (편집부)

김수영권사는 (본명: 홍수영) 홍익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하셨고 1963년 그의 서양화는 국전에 당선이후 수차에 걸쳐 전시회를 가졌고 알버커키에서는 콜라지에 집중하셨다. 이번호 표지와 왼쪽의 두그림과 표지의 그림은 그의 대표작이다. 아래 사진은 1991년 한국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St. Paul UMC에서 한인여러분을 위해 전시회를 갖았을때 교우들과 함께한 사진이다. (김준호장로와 김수영 권사 부부는 따님이 계신 달라스 텍사스로 곧 이사하실 예정이다. 우리 다시 만날때 까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원한다.) ■



꽃의 합창



해변의 꿈

칼럼

기적은 강물처럼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메릴랜드 지역 메이 감독께서는 ‘용감한 사람들’의 일환으로 12개의 소수민족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 중 한국교회 개척을 저에게 맡기셔서 게이더스버그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처소를 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는수 없이 한 집사님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식당에서 예배를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주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식당교회 내부에는 십자가는 없고 음식 메뉴만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것 만으로도 기뻐고, 마음껏 찬송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가 넘쳤습니다. 몇 안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쁜날 기쁜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 늘 기쁘게 살아가리” 찬송을 부를때면 피차간에 감격의 눈물을 흘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첫번째 기적이 일어 났습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가운데 한 사람이 강대상을 만들어 헌납하였습니다. 그는 남미 출신의 스페니쉬 였고,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들의 교회 세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에 만난적도 없고, 이름조차 모르는 그 청년, 생면부지의 그가 우리를 울렸습니다. 아니 그의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응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주가 또 지나자 두번째 기적이 일어 났습니다. 볼티모어 워싱턴 연회에서 파견된 사진기자 한분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식당교회와 예배실황을 이모저모 고스란히 사진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타의 귀감이 되기 때문이라 하며 우리를 격려하였습니다. 비록 보잘것 없는 식당교회요 소수의 무리였지만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몇달후에는 세번째 기적이 일어 났습니다. 우리 연회에서 발간하는 새 성경책 맨 앞장에 우리의 식당교회 사진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메이감독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일, 즉 risky job” 이라고 늘 강조하셨는데, 지금 우리 식당교회가 그 위험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성경책 발간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감동이었고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후 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게이더스버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성경발간이 도화선이 되어 미국인 교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죠. 열악한 환경의 식당교회가 15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웅장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다니... 믿을수 없는 감격이었죠. 감동이 넘치는 예배는 계속되었고 교인들의 사기는 충천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여름이 되었습니다. 반년도 안 된 개척교회인데 무슨 여름성경학교를 열수 있느냐고 하는 반문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자는 취지로 그냥 개최하기로 결정, 신문광고를 내고 어린이들을 모집한다고 지역사회에 알렸더니 뜻밖에도 50여명의 아이들이 몰려 왔습니다. 몇 안되는 교사들과 또 부역봉사를 자원하시겠다는 젊은 부모님들과 함께 신바람나는, 참으로 신바람나는 두주간의 여름성경학교를 은혜중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번째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그 힘든 상황에서 발견케 되고 경험케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한 평범한 여인 룿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 태생으로 이방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방인을 없이 여기는 정서가 깊었습니다. 특히 모압 지방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감도 찾아보기 힘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조차 일찍 죽었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망도 없었으며 거기다가 혼자되신 시모님을 모셔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이 여인은 사람구실조차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라도 이 여인은 순전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하나님으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이웃의 차가운 눈초리는 문제도 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생명주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던지 만족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을 절대 인정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써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룯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역사가운데 가장 위대한 다윗왕도, 모든 인류를 죽을수 밖에 없는 죄가운데서 구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자손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에 사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순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매일의 삶이 된다면,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함께 하셔서 기적은 강물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Jinok Hur OH69285/CA

장수시대!!

암.치매.중병.장기요양등이 걱정되시나요?
실속있게 꼭 필요한 보장까지 꼼꼼히!
가족과 나를 위한 생명보험
선택 아닌 필수!

상담은 바로 지금! 408.210.6972

인컴
자신이 노력한 만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사람
다양한 만남과
경험을 통한 인생공부,
인맥 넓이기

평생
준비를 걱정하지
않는 평생직업

**보험 전문가가
좋은 이유**

보람
나와 이웃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을때의 보람

시간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시간이 아닌
나만의 스케줄 관리

비전
초보자도 파이낸스
필드에 도전할 수 있는
증명된 시스템

'허진옥 보험'

**의미 있는 일,
영향력 있는 미래를
꿈꾸시나요?**

지금 도전하세요!

이름: 허진옥

📷 건강보험
📄 학자금 준비
❤️ 생명보험
🏠 은퇴 플랜
📄 IRA 401K Roll Over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중심은 부모님이겠지요. 누구에게나 어머니 아버지 계시지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려지는 부모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 나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또는 어떤 어머니의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매년 5월 둘째 주일에 있는 어머니날(Mother's Day)은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매년 6월 셋째 주일에 있는 아버지날(Father's Day)은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1908년 5월 10일 웨스트버지니아 그레프톤(Grafton)에 있는 앤드류 감리교회(Andrew Methodist Church)에서 407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드린 어머니 날(Mother's Day) 예배였지요. 예배를 마치자 안나 양(Miss Anna Jarvis)은 예배에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안나 양은 1864년 그레프톤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안나 양의 어머니는 앤드류 감리교회에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안나 양은 어머니로부터 깊은 사랑과 신앙교육을 받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친밀하게 지내던 안나 양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향을 떠나 버지니아에 있는 매리 볼드윈 대학(Mary Baldwin College)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안나 양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905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안나 양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는 어머니 날(Mother's Day)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겼던 앤드류 감리교회에서 최초로 어머니 날 기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머니 아버님은 삶의 모델로 항상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여러 억압을 겪으시고 한국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겪으신 세대였지요. 가난과 고난의 세월 속에 남처럼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말로 교육하신 것이 아니라 생활로 행동으로 교육시키신 분들이셨지요.

어머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지요. 비가 오나 눈이오나 새벽기도를 드리러 매일 걸어서 교회에 가셨으며 못 가시는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일 저녁예배, 속회나 특별집회 등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셨던 분이시지요. 집에서 텃밭 농사를 지어 첫 열매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며 신문지에 싸서 교회로 가져가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한국 전쟁 때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풀려나신 후 인천에서 삶을 정착하기 위해서 집을 짓거나 수리해주는 목공일을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목수로 살아오셨지요. 겨울이 되면 집 안에는 반창고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고 특유의 반창고 냄새들이 집안에 고여 있었지요. 추운 겨울날씨에 맨손으로 시멘트 공사와 목공일을 하시면 손이 갈라지셨습니다. 갈라진 손가락들을 하얀 반창고로 단단히 돌려 매시고 매해 겨울을 보내셨습니다. 손을 만지면 매끈매끈한 반창고와 더불어 까칠까칠했던 아버님의 투박한 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의 일을 해주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는 다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묵묵히 돌아오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아버지는 선함과 성실함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지요. 언젠가 12월인 것 같네요. 십일조 봉투에 반창고가 붙어있었습니다.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용하라고 준 십일조 봉투였는데 연말이 되면서 봉투가 헤어지자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 15페이지로 계속

수필



고추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내가 사는 뉴멕시코 주의 특수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고추가 많다는 사실을 든다. 주의 중부를 관류하는 리오그란데가 사철 제공하는 약간의 염기를 지닌 물, 비옥한 알칼리성 토양,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시원한 기후 등이 고추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해 주어, 고추는 오래 전부터 원주민들은 물론 스페인계 사람, 북유럽계 사람, 혼혈인들의 기호 식품이었다.

식물의 재배를 중심으로 가축의 사육을 아울러 행한 농경 문화가 뿌리 깊은 주다. 남단에 위치한 도시 Las Cruces에 주립 대학교가 설립되고, 1992년에 농과대학 부속 고추 연구소가 창립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농경 문화의 전통을 살리면서, 허끝에 느껴지는 고추의 독특한 맛에 애착을 가진 주민들의 열망에 부합되는 일이었다.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로 출발한 연구소가 지난 30여 년 동안에 이룬 업적은 놀랄 만하다. 현지의 재배농은 물론 일본, 이스라엘, 인도, 멕시코 등의 연구소와도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교육용 정원을 비롯하여 실험 포장, 실험실, 종자 보관소, 첨단 과학 기술 장비 등을 갖추고, 수많은 연구원들이 토양, 수질, 질병, 영양, 풍미, 매운 맛, 수확, 가공 등의 고추와 관련된 다방면적인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제각각의 풍미를 지닌 50여 종에 달하는 변종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면서, 양념의 연구에만 전념하는 과학 기관으로 날로 번창한다. 가장 큰 파란 고추 Big Jim은 길이가 25센치미터에 달하여 기네스 북에 올랐다. 개발된 변종들이 주의 곳곳에서 재배되어 지방 특유의 풍미를 내는 고추를 생산한다. 주의 주요 작물은 건초와 호도의 일종인 페칸인데, 연구소가 고추를 명실 공히 주의 세 번째 중요한 작물로 만들어 한 해에 5천만 불의 소득을 올리는 제1차 산업으로 승격시켰다.

더위가 채 가시기 전 8월이면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자극한다. 파란 고추를 볶는 냄새인 것이다. 고추를 넣어 만든 각종 요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스크림, 햄버거, 베이컨 등을 파란

고추로 가미하여 파는 음식점도 있다. 볶은 고추가 들어 있는 커다란 봉지를 일주일 동안 침지하여 내놓는 맥주도 인기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혀가 알알한 매운 맛보다 꽃다운 향기나 고상한 맛을 더 즐긴다. 여기 사람들은 고추를 냉동고에 저장했다가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한다.

매운 맛으로 먹는 것이 고추이고, 맵게 만드는 성분은 캡사이신이다. 사람들이 수시로 즐기는 살사는 빨간 고추가 들어가는 매운 소스다. 특별히 매운 고추는 근육통, 관절염, 편두통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크림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며, 곰을 퇴치하거나 해충을 제거하는 스프레이의 주성분이 된다. 매콤한 고추를 각종의 견과와 함께 볶아서 시판하고, 가루를 내어 풍미나 매운 맛을 없앤 다음 소시지나 마요네스 등에 첨가한다. 플라밍고나 열대어 사료에 빨간 고추물을 들이면 동물들이 더 잘 먹는다.

가을에는 햇고추로 만든 리스트라 ristra (끈 또는 실을 뜻하는 스페인어) 가 집집의 현관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환영한다. 뉴멕시코 특유의 심미적 장식물인 그 빨간 고추 묶음은 어도비 (고지 사막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의 특이한 건축 양식) 벽에 걸려 있을 때 특히 아름다우며, 한편으로는 마늘 엮음처럼 고추를 말려 저장하는 데에도 쓰인다.

화분에다 심어 실내에서 기르면서 즐길 수 있는 관상용 고추며, 공휴일을 나타내는 고추들이 연구소를 찾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조그마한 호박 모양의 주황색 둥근 고추는 헬러윈을, 한 포기에 몇 가지 다른 색깔의 고추가 달린 것은 크리스마스를, 달걀 모양의 고추는 부활절을, 자색의 하트 모양 고추는 재향 군인의 날을 각각 상징한다. 조그맣고, 열매가 많이 열리고, 속성하고, 너무 맵지 않으면서 우주선 안에서 재배가 가능한 뉴멕시코 파란 고추가 화성에 가는 첫 번째 과일이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우리 민족은 천 년도 더 전부터 야채를 절여서

<고추> 15 페이지로 계속

수필



구름 잡기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수필가

기록된 역사가 없는 시대 -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 아시는 시대! 그것을 선사시대라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까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번쩍번쩍 뿜~ IT 세상을 제법 잘 따라 사는것 같아도, 아니다. 그렇치 못하다. 컴퓨터 작동에 뭐하나만 이상해도 번개 불치듯 바쁜 아이들을 불러대야만 하니 영~ 남의 세상에 얹혀 사는것 같다. 하기는 이제 아무에게나 반말 할 수 있는 나이 80, 머지않아 곧 한국말도 통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나이가 될 판이라니, 뭐 그리 엉뚱한 것만은 아닐게다.

그런가하면 또 그 살아온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여곡절이 다채로워서인지, 열이면 열, 다 살아온 얘기들을 글로 쓰자면 장편소설 같이라는 것이다.

그저 편안할 틈없이 엉겨온 사연들로 한 많은 세월이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돌아보면 그런 고통과 시련들이 있었기에 요만큼 정신차려 살 수 있었지 싶은데, 고통은 온전히 하나님의 치료 처방이다. 그 처방으로 막혔던 귀가 뚫리고 뜨고도 보지 못하던 눈에分別이 보이기 시작했고 까칠하게 메말라 가던 가슴엔 눈물도, 그리움도 ... 알고도 모르는 듯 넘어가 주는 관용이랄까? 그런것 까지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아무 일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엔 너무 소중하고 아까운 게 인생이지 싶다. 그저 무위도식처럼 딱한 인생이 또 있을까? 자의든 타의든 맘대로 안되는 세상사와 씨름해 보는 것 그리 고단한 것만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흔히 공평치 못하다는 세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잃었는가 하면 아뵘싸! 어느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얻은 것이 분명히 있는 공평한 세상이 이 세상이지 싶다.

“안돼! 나군(현재 내 남편) 하고는 안 된다. 나군은

하늘에 뜬 구름을 잡겠다는 사람이야.” 우리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면서도 박흥수 교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결혼만은 반대하셨었다. 하늘에 뜬 구름을 잡겠다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려면 그에 따르는 고생이 얼마나 불보듯 하느냐가 교수님의 지론이셨다.

그러실때마다 “왜 땡겨다 걱정을 하시느냐” 던 청춘! 게다가 한 자나 추켜올려진 고동색 칠부 바지며 또 어떤 미국 군인이 신다가 버린 짹짹이 워카속에서 오동통 한국 청년의 표준 사이즈 발이 미끄러 지던 삐그덕 소리는 해가 바뀌어도 엄청 바쁘기만 했다. 강의실에 늦을세라 삐그덕, 가정교사직에 늦을세라 삐그덕...

“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11:29)는 유난히 내 머릿속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면서 과연 너는 저 삐그덕 소리를 평생 들어도 견딜 수 있겠느냐?를 묻고 또 묻고...가 아니었던가.

불은 활활 불탈때, 배는 부두에 매인 밧줄을 끊고 창창 바다 물결을 헤치며 나갈때에 그 존재를 알게 된다던가! 고루 갖춰지지 못한것을 핑계하거나 똑똑 이해타산을 따져 계산하지 않는 것 또한 청춘이기 때문이었으리라.

그 삐그덕 칠부바지의 청춘과 함께 하늘에 뜬 구름잡기에 나섰다. 아니 우리 짠에는 꽤나 열심히 했다 싶은데. ... 고기잡이에 나간 어부! 한번도 만선으로 거들먹거리며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돌아와 보지 못한 무능한 어부같아서, 또 넉넉히 그리 안 할 수도 있었던 실수들... 뭐 그런것들로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제대로 발육되지 못한 쫄심이 엄청 상했었는데...정한 시간이 되어 은퇴한지도 여러해 되었다. 마치 꿈뻑! 선 잠 자다 깬듯 싶은데, 그 끈질긴

설득들을 물리고 시작한 구름잡기 동행이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아무것도 이룬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인지 가끔 카폴링의 ‘만일’ 이란 시귀,

“ ... 만일 네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수 있다면,
 ... 만일 네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 왕과 함께 걸어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가

때로 공연히 편찮은 심사로 뒤척일때면 언제나 번개같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그러다보면 또 축맥같은 나는 ‘그래 맞다 맞아’ 하며 고개를 끄덕 수긍하고 지나가곤 했었다.

그런 울퉁불퉁 세월을 거쳐서 구만리 같았던 오늘을 산다. 구글을 한두번만 쳐도 엄청난 분량의 정보 검색 내지 분석까지가 다 가능한 이 빅 데이터 시대에 나는 분명 아나로그다. 그럴지라도 오직 만고불변의 말씀은 자산삼아 여기까지 구만리를 왔으니 감개무량, 유감없는 감사다. 그렇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죽일만큼 우겨싸지만 스스로 핑계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하늘법이 다스리고 있음이 아닌가!

오늘은 구름잡는 청년과의 행진 54주년 되는 날이다. 엄청난 사투를 지불하고도 양상한 뼈밖에 손에 건진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건만, 고기잡이에

지치기는 커녕 다시 꿈을 꾸며 출렁이는 험한 대해로 “또다시” 나가던 소설속 노인이 오늘따라 생각한다. 산다는 것! 가장 숭고하고 귀한 예물이다.

땡겨다 걱정하지 말자던 구름잡기 청년이 이제는 따끈한 국물이 좋단다. 세월이 많이 지났나 보다. 따끈한 멸치육수에 메밀국수를 말아 볼까? 아니면 얼큰 칼국수? 국수가 장수의 상징이라니 오늘은 그냥 그렇게 소설속같은 동행의 감회를 한스폰 듬뿍 얹어 내 볼까?
 할렐루야!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 12페이지에서 계속

반창고로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월급생활이 아니라 일을 하는 대로 받는 수당으로 생활을 하셨기에 일당을 받아오시면 그 투박한 손으로 십분의 일을 세어서 매번 봉투에 넣어놓으셨던 것이지요. 봉투를 너무 자주 만지니까 연말이 되면 봉투도 아버지의 손처럼 갈라지곤 했던 것입니다. 반창고로 토מן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반창고를 붙인 봉투에 현금을 넣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의 아버님 어머님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희생으로 품어 오신 사랑의 부모님이셨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믿음의 부모님이셨지요. 목사인 저에게 삶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신 김도경 권사님과 이정옥 권사님이 저의 부모님이셨습니다. ■

<고추> 13페이지에서 계속

떡다가 17세기 초 고추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김치를 담가 먹게 되었는데, 그 사이 한국인 밥상의 기본이 된 김치는 고추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식품이다. 소화를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세균을 죽이기도 하는 고추가 우리의 식생활에 필수품이 된지는 오래다. 파란 풋고추를 갈라 씨를 빼 뒤 고기, 생선, 두부를 다져 넣고 찌면 고추선이 되고, 고기를 다져서 양념한 소를 넣고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지지면 고추쌈이 된다. 잘 익은 빨간 고추는 말려서 빵아 양념으로나 고추장을 만든다. 한국인의 기호 식품 중의 하나인

각종 매운탕에는 반드시 고추장이 들어간다. 잃은 데쳐서 무쳐 나물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말린 다음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남아메리카의 열대 우림에서 발원한 고추가 전 세계 온대와 열대 지방에서 널리 재배된다. 뉴멕시코에 사는 한인 교포들은 NuMex Sandia라는 이름을 가진 고추의 가루로 김치를 담가 먹는다. 유학 시절 호주에서 본 몹시 매운 ‘새눈 고추’ Bird’s eye chile의 깜찍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작고 둥글며 밝은 색 꽃이 피어 빨간 열매를 맺는 관상용 식물이었다.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물에 만 보리밥을 먹던 때가 가끔 그리워진다. ■

기도문

기도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는 이 없었던 이 광야와 같은 알버커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처소를 만들어 주시고 예배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관하심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실까 하며 의심과 원망을 했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와 돌이켜 보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세밀히 주관하여 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앞에 또 어떤 환란과 시련이 닥칠 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저희가 저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거룩한 주님의 얼굴을 뵈을 때 주님께서 “충성된 나의 종아 정말 수고하였다.” 하고 안아주시며 면류관을 저희 머리에 씌워 주실 때 이십사 장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닙니다.주님!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구경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집사
Intel /엔지니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어린양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대답하며 저희 머리에 씌어주신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내어 드리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예배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토막글

어머니의 기도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 자기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 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집안 뿐이 아니다. 들에서 일할 때나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나가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링컨의 어머니는 몹시 가난한 중에서도 그 가정의 분위기를 기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앙적 분위기를 조성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 에게 남겼던 것이다.

출처:현대 예화 사전 (최효섭 저) ■

칼럼

폭력의 시대에 비폭력 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를 제안하며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면 서로 친밀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에 있다고 합니다. 개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는 이를 위협과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고양이는 기분이 좋아 그르렁 거릴때 강아지는 그것을 싸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니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현대는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자라면서 말은 배우지만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자랍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인데 이 언어로 서로 상처를 줍니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말로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1940년대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학교에서 겪은 인종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마셜 로젠버그 (Marshall B. Rosenberg)의 <비폭력 대화: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삶의 언어 (Nonviolent Communication)>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베소서 4장 29절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임을 발견합니다. 로젠버그는 이 책에서 폭력이란 물리적, 정신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폭력 대화의 비폭력이란 우리 마음에서 폭력이 사라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생기는 연민의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비폭력 대화는 Nonviolent Communication의 번역을 줄여서NVC라 칭하며 서로



의 차이를 존중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의사소통의 기술로 개발되어 ‘연민의 대화 (Compassionate Communication)’ 또는 ‘삶의 언어 (Language of Life)’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젠버그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도덕적주의적 판단 (Moralistic Judgment)으로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쁘다거나 뭔가 잘못되었다고 암시하는 말이 있고 그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습니다. 모욕, 꼬리표 붙이기, 상대를 비하하는 말 등이 포함되면 대화로 상대방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게을리, 저 사람은 무책임해, 우리 섬김이는 너무 권위적이야. 이런 도덕주의적인 판단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단절하게 합니다. 둘째는 강요 (Demand)로 우리의 부탁을 상대가 들어주지 않을 때 상대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떤 비난이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이 암시적으로나 표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복종을 계속 당하면 내면에 분노가 쌓이고, 상대방이 내 부탁을 당연히 들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그것은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 먹어야 해요라는 표현들은 강요의 사례가 됩니다. 셋째는 상과 벌을 정당화하는 말들 (Justification of reward and punishment)로 어떤 행동에는 상과 벌이 당연히 따라야 하고 그 이유나 기준은 자신만 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해, 그 정도는 당연히 해 주어야지라는 말입니다. 넷째는 책임을 부인하는 말들 (Denial of responsibility)로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해 책

임을 부인하는 말들입니다.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할 때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예를 들면,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때렸다는 표현이나,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붙인 꼬리표로 나는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이야라고 표현하거나, 집단의 압력으로 다른 애들이 다 기도를 안 하니 나도 안 한다라고 표현하거나, 자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나도 모르게 그 케이크를 혼자 다 먹었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섯째는 비교와 경쟁 (Compare/Compete)으로 비교하는 것도 비판의 한 형태입니다. 비교를 당하면 누구나 비참하고 두렵고 불안해져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나 적이 되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거나 연민을 느끼기 힘들어집니다. 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우울하거나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 자유와 생동감을 느끼고 실제 그대로를 관찰로 볼 수 있으며 창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000보다 못하니? 000는 이번에 성경암송퀴즈대회에서 일등을 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라는 표현은 비교와 경쟁으로 상대를 비판하는 표현들입니다.

로젠버그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비폭력 대화방법을 제안합니다. 의사소통의 기본은 말하기와 듣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하기의 핵심은 ‘솔직함’이며 듣기의 핵심은 ‘공감’이고,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네 가지 영역으로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바라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도록 대화 단계를 구조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안합니다.

비폭력 대화 방법의 구체적인 네 가지 단계를 살펴보면, 관찰 (Observation), 느낌 (Feeling), 욕구 (Need), 부탁 (Request)의 4단계로 듣고 말을 하고, 이와 같이 말할 때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 안의 움직임을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한 말이 뜻한대로 전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모두의 욕구가 평화롭게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대화를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대

화에서 평가 (Evaluation)가 아닌 관찰 (Observation)의 방법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관찰은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접촉한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평가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판단, 평가, 추측, 의견을 섞어서 말하면 상대가 이를 비판으로 듣고, 자기 행동을 변명, 합리화 하거나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어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판단이나 평가를 관찰을 통한 사실로 바꾸어 표현한다. 예를 들어, 그는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평가에서 그는 지난 세 번의 모임 시간에 모두 30분이 지난 후에 왔다고 관찰하고, 그 사람은 이기적이어야라는 평가보다는 오늘 한인회 봉사 준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생각 (Thoughts)을 표현하기 보다는 내 느낌 (Feeling)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느낌이란 외적, 내적 자극을 받았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느낌은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경보기 같은 것으로 우리의 내면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결핍되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느낌은 또한 생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생각이나 평가가 섞이면 내 느낌의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게 됩니다. 느낌을 표현할 때는 뜻이 모호한 말보다 구체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것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라고 할때 “좋다”라는 말보다 “설레다,” “기쁘다” 등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느낌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수단/ 방법 (Strategies)이 아닌 나의 내면의 욕구 (Need)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어 있기에 느낌을 통해 내면에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대화의 초점을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에 맞추게 되면 인간 관계의 내면에 흐르는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지고 보다 명료하고 따뜻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욕구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 방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욕구는 보편적인 것이기에 모두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의 한가지 수단/ 방법만 옳다고 주장하고 집착하는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상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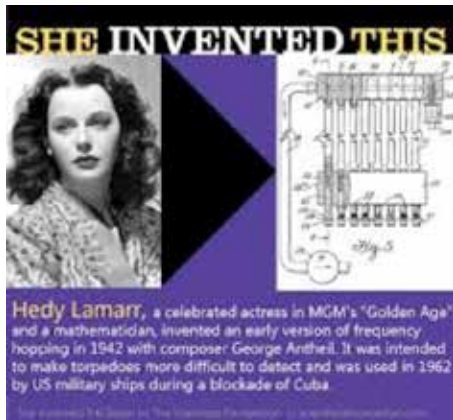
<폭력의 시대에 비폭력 대화> 24페이지로 계속

영어이야기 14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우린 가끔 어떤 사람에게, 전혀 그렇지 않게 보였던 면을 보고 종종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때 처음으로본 영화는 Hollywood 여배우 Hedy Lamarr(헤디 라마: 1913 ~ 2000) 와 Victor Mature가 주연한 Samson and Delilah (삼손과 데릴라, 1949년 작품)로 1954년, 제가 6 살때로 기억됩니다. 우리말로 "삼손과 데릴라"로 표기하지만, 영어발음은 "쌌슨과 딜라일라"입니다. 요염한 당대의 Big Star 로만 알고있었는데, Hedy Lamarr가 2010년 죽었을때, 신문기사 제목이 "Spread Spectrum Inventor, Actress Hedy Lamarr, Dies" 였습니다. 이 여배우가 "Frequency-hopping" 으로도 불리는 "Spread spectrum" 의 발명자인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Spread spectrum(스펙트럼 확산)은, 정보를 가진 신호를 정교하게 어느 주파수대역에 퍼져있게 함으로서 간섭도 줄이고, 전파방해도 할수있는 기술로, 오늘 날의 Wi-Fi 핵심기술이기도 합니다. Hedy Lamarr 는, radio signaling device for radio-controlled torpedoes (무선으로 제어되는 토피도용 무선신호 기기) 로 "Secret Communication System" (비밀 통신시스템)이란 title로 1942년 특허를 받았는데, 사용주파수를 미리 정해진 대로 임의로



바꿈으로서, 적에게 전파방해 (jamming) 를 하는 결과가 되어, torpedo가 탐지(detection) 되는것을 막을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해군에서 즉각 쓰이지는 않았지만, 1962년 미국의 큐바 해상봉쇄(sea blockade)때 군함간의 통신system 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허는 1942년 8월 11일로 되어있고, 특허번호는 2,292,387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장에 걸쳐 schematic(도면)도 있는데, 기본 전기회로를 볼수있습니다. 특허는 친구이자 sound synchronization 에 조예가 깊었던 작곡가 George Antheil (조지 안타일) 과 공동으로 출원했습니다. Antheil로부터 player piano, 즉 program된대로 두대의 피아노가 여러 건반을 두드리는데, 이때 synchronization 즉 동시에 작동시키기 위한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그의 이러한 지식을 빌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해온 frequency-hopping을 이용한 일종의 guided torpedo (유도된 토피도)인 비밀무기를 해군에 청원하는 한편, 특허를 받았습니다. 피아노의88 개의 건반 사용은, 88 개의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여 주파수를 빠르게 바꾸어가며 제어를 하는 torpedo 에 응용되어, 적에게 탐지되지않는 무기system을 개발한 셈입니다. 이때 빠르게 주파수를 바꾸며, 송신과 수신이 잘 맞아 떨어져야 (synchronize 가 잘 되어야), 적의 전파탐지를 막을수 있습니다. 지금의 wireless통신보안 문제의 기본기술이 된셈입니다. 당대의 sexy 하고 요염한(sultry) 여배우의 기술적인 지식에 놀랄뿐입니다. 몇해전 PBS에서 방영된 Documentary영화 Bombshell 은 Hedy Lamarr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녀는 촬영이 없는날에는 집에있는 실험실에서 여러가지 실험도하며 신호등도 개선하고 여러가지 발명도 한 여배우입니다. Lamarr 는 Austria 의

Vienna 에서 1913년 Hedwig Eva Maria Kiesler 란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첫남편인, 무기 생산업자 Fritz Mandl 과 함께 다니면서 얻은 지식으로 engineer 기질이 농후했던 Lamarr 였지만 관능적인 배우로서 더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발명은 정작 2차 대전때에는 쓰이지 않고, 특허시효는 1962년에 만료되고, 그후에 이기술을 이용한 (GPS, Bluetooth, Wi-Fi 등)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참후인 1997년에야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에서 인정을 받아 EFF상(EFF award)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배우로 활동할 당시 Hollywood의 MGM 사는 Hedy Lamarr를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로 부르면서 일반인들에게 그녀의 미모로 주가를 올렸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의 미모보다 발명과 실험에 심혈을 기울인, 전혀 배우와는 다른 이미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미모에 대해 이야기한것을 보면, “My face has attracted all the wrong people into my boudoir and brought me only tragedy and headache. It is a mask I cannot remove. I curse it.” (제얼굴은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여 호화스런 저의 내실로 불러들여, 저에겐 비극이요 골치덩어리였습니다. 얼굴은 벗길수 없는 가면에 불과한것이기엔 저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boudoir (부도와)” 는 상류여성들의 내실인 sitting room으로서 화장도하고 앉아쉬는 salon같은 방을 뜻하는 불란서어입니다. 그녀는 또한 말하기를 “The brains of people are more interesting than the looks. (사람의 뇌가 얼굴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Hedy Lamarr는 Austria출신이였기에, 미국으로 왔어도, 독일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비슷한 계통의 말인 영어를 우리보다는 쉽게 습득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어를 배울때, 서양인보다 우위에 서있다고 말할수 있는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말 순서도 비슷하고, 어미변화도 있고, 더군다나 한자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교육을 거의 받지않는 신세대들에게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의 많은 어휘가 한자어인 까닭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간과하지 못할점은, 한자를 배운덕분에, 일본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때 가끔 한자를 사용하면 위력을 발휘할뿐 아니라

무언가 통하는 일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어에 있어서 한자어 같은 역할을 하는것이 Latin 어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 말에 “손을 씻어라” 할때는 순 우리말인 손을 쓰지만, 한자어인 손을 나타내는 “수(手)”가 들어가는 말을보면, 수족(手足:손과발), 수하(손아래 사람, 부하), 수제품(손으로 만든 물건), 수중(手中: 손아귀)을 들수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hand 가 손을 나타내는 소리글자라면, hand 를 뜻하는 Latin 어의 manus 가 영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수있습니다. manual(매뉴얼)의 원뜻은 “손을 사용하는” 의 뜻입니다. 손이 하는일이 곧 사람이 하는일이므로 기계가 하는일에 비해 사람이 하는일(노동)을 “manual labor”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기를 사면 달려오는것이, 어떻게(손으로) 작동 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지침서가 manual입니다. 자동차의 변속도 요즈음은 거의 automatic(자동 변속)이지만, gear(기어)를 손으로 바꾸어야 하는 변속은, manual shift 또는 stick shift 라고 합니다. 스페인어와 이탈리아로 손은, 같은 로망스어 계통으로 mano(마노)입니다. 영어에 손을 뜻하는 hand 가 있지만, 손을 나타내는 Latin어의 manus 가 일상언어에, 한자어가 우리말에 들어가 있듯이 많습니다. 제가 편집자에게 보내는 기사는 manuscript(매뉴스크립트)로, hand의 뜻인 manus와 write 의 뜻인 scribere의 과거분사형인 scriptus가 합성된 말입니다. 원래의 뜻은 “a book, document, or other composition written by hand”로서, 손으로 쓴 책, 서류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폐(lung)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는데 pulmonary(펄머네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Latin어의 pulmo-는 폐(lung)를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통의 언어인 스페인語로 폐는 pulmón(플몬), 이탈리아로는 polmone (폴모네)입니다. 심장과의사는 heart doctor 대신 cardiologist로, pedo-, ped-는 어린이를 뜻하므로 소아과는 pediatrics, ped-는 또한, 발(foot)의 뜻이 있어 보행자는 pedestrian(피데스트리언)으로 영어에는 뜻글자가 많습니다. 생활필수품이된 smart phone과 GPS를 사용할때마다 Hedy Lamarr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군요.

Thank you.



선교/Ecuador



졸업은 새로운 시작!

에콰도르 선교사역 소개



임동섭
에콰도르 선교사

이 글은 ‘앨버커키 한미침례교회’를 2001년 9월 9일부터 담임하셨던 임동섭 목사의 에콰도르 선교사역 중에서 2019년 10월에 첫 번째 졸업생(목회학 석사 학위 6명, 준신학사 학위 2명)을 배출한 기념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선교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소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저는 전북 정읍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흠냄새를 맡으며 정읍 ‘서신초등학교’와 ‘호남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인하대학교(공학사)를 졸업한 후 학군장교(ROTC 14기)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인하대학원(공학석사)을 졸업한 후 ‘원광대학교’에서 2년 동안 물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미원그룹’에서 간부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40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나사렛대학교’에 편입하여 신학사 학위를 받고, ‘나사렛 목회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더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라, ‘Liberty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목회학석사), Th.M(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D.Min(목회학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02년 9월 9일 콜로라도 덴버에 ‘포근한 교회’를 개척하고, 2010년 10월 10일 ‘선교방송다리’를 설립했습니다. 2015년 6월 25일 ‘덴버지역 교역자회’에서 우리 부부를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아마존 선교대학’을 세우고, 2017년 10월 10일에 ‘국제 복음 신학대학원’을 세웠습니다. 2018년 5월에 ‘메릴랜드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서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2.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게 된 동기와 언제부터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A. 2014년 9월 새벽 예배 후 개인 기도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남미 지도가 보이고 에콰도르 지도가 솟아오르는 환상이었습니다.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의 생각이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 2주일 정도 더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위 분들에게 선교사로 나간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25일 ‘덴버지역 교역자회’에서 우리 부부를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저는 가기 전부터 에콰도르에서 할 일을 정했습니다.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양성하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신학대학원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7월에 ‘에콰도르 한인선교사 연합회’ 월례회에 참석하게 되어 선교사님들을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회장이셨던 이진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진호/장호빈 선교사 부부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 현장을 보면서 후원받은 물품들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속 교제하게 되었으며, 이 선교사님은 학교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2016년 6월에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 에콰도르 한 대학교 ‘어학 당’에 등록을 하고 7주 동안 지낼 숙소를 얻었습니다. 대화 중에 장 선교사님이 신학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숙소에서 장 선교사님과 시작한 것이 신학교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3. 에콰도르에 선교는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와 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부부의 주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신학교

사역은 학사과정과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대학 이름을 ‘에콰도르 아마존 선교대학 (Academia Misionera Amazonas De Ecuador)’이라 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카데미’는 현지에서 ‘학원’ 또는 ‘유치원’이라는 뜻이 강하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로 쓰겠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공군사관학교(Air Force Academy)’에서 ‘교육 및 훈련’의 뜻으로 ‘아카데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름의 뜻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존 선교대학’을 약자로 쓰면 ‘AMA’입니다. ‘AMA’는 스페인어로 ‘사랑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AMA의 학생들은 이진호 선교사님이 하시는 어린이 사역의 스텝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이 선교사님의 책에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키토 사랑의 교회’가 설립된 후에는 교회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은 미국에서 강사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일 년에 3번(2월, 6월, 10월) 집중강의를 했습니다. 졸업학점은 4년 동안 120학점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수업료는 스텝 또는 제직일 경우에는 미국 수업료의 2%를 받았습니니다. 목사님인 경우에는 1%를 받았습니니다. 미국에서 대학과정 수업료는 학점당 약100불로 계산했을 때 240불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의 이름은 ‘살리나스 신학대학원’으로 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에콰도르에 있는 ‘살리나스’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개명한 이름은 ‘에콰도르 국제 복음 신학대학원(SEIE: Seminario Evangélico Internacional de Ecuador)’입니다.

첫 수업은 ‘나사렛신학대학원’에서 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침례교 목사님들입니다. 수업은 미국에서 강사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일 년에 3번(2월, 6월, 10월) 집중강의를 했습니다. 졸업학점은 3년 동안 90학점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수업료는 모두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미국 수업료의 1%를 받았습니니다. 미국에서 대학원과정 수업료는 학점당 약200불로 계산했을 때 180불에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지난 선교사역을 통해서 배우신 것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A. 첫 번째로 배운 점이라면 ‘뜻’이 ‘환경’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에 가면 후원하겠다는 분도 없고, 오면 안내하겠다는 분도 없고, 선교에 쓸 비용도 모아둔 것이 없고, 선교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스페인어도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콰도르에서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사역하다보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환경을 변화시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니다. 이진호 선교사님을 통해 신학교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출석하셨던 교회의 담임목사님이신 ‘엑토르’ 목사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엑토르’ 목사님은 M.Div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10여년 이상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원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생산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졸업한 후 제자 육성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학사과정의 교수님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분과 현지 지도자에게 위임하고 나오겠다는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졸업생을 배출하기는 그래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졸업생이 자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하신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집중할 생각입니다.

5. 첫 번째 졸업생을 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교사님께서 에콰도르에서 첫 번째 추수가 있기까지의 학생들 모집과 학사 진행에 얽힌 이야기와 그 다음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2019년 10월 11일에 6명의 학생(목사)들이 ‘목회학 석사(M.Div: Maestría en Divinidad)’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과정 졸업식은 10월 12일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데모로 인해 10월 18일에 했습니다. 두 분의 학생이 ‘준신학사(AD: Asociado en Divinidad)’ 학위를 받았습니다.



목회학 석사와 준신학사 졸업생

단기간에 8분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은 우리 부부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통역(한국어를 스페인어로)자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학교의 운영자들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신학교는 학부 과정은 ‘어린이 사역’을 돕는 스텝들이 그대로 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수월했습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은 ‘엑토르’ 목사님이 공부하고 싶은 목사님들을 권유했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로 직접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어로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영어를 스페인어로 통역하시는 현지인들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가장 화나는 일은 저에게 ‘학위장사’를 한다는 악평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미국 수업료의 99%를 장학금으로 주고 1%의 수업료만을 명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40%는 후원이고 60%는 제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신학교들과 협력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중남미에서 교통 중심도시는 5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5대 도시는 파나마시티, 리마,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입니다. 특히 파나마시티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입니다. 브라질 외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콰도르 사역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중남미 신학교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학점 상호인정, 교환 교수, 교환 학생, 협력 사역 등 사역의 영역을 넓혀보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후원자의 도움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후원자들에게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면 사역이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후원자들에게 보여주기 쉬운 것이 건물입니다. 저는 학교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사역의 열매를 빨리 맺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를 든다면 건물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교육에만 집중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콰도르에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권유하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고도가 높은(9500 피트; 2850m) 곳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도 하고 다른 위험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권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을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교육관

<폭력의 시대에 비폭력 대화> 18페이지에서 계속

을 탓하기 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서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요 (Demand) 대신에 부탁 (Request)합니다. 부탁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필요한 것을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탁에는 ‘연결부탁’과 ‘행동부탁’이 있습니다. 연결부탁 (connecting request)은 상대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와 같은 부탁입니다. 행동부탁 (action request)은 상대에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거나 해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명료하게,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가급적 질문의 형태로 요청하는 것으로 부탁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폭력 대화의 훈련을 받은 한 가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지역의 각 가정에 비폭력 대화의 방법을 통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 동안은 아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고 아내를 무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 한다. 아내는 이야기 해주는 것만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칭찬하려고 하고, 부부간에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이혼할 만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런 계기가 주어지고 교육 받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말들이 한번 생각해서 나오게 된다. 요즘은 좀 노력을 하니 아내도 농담을 한마디씩 하고, 나도 농담을 받아 주며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도 존중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부터는 표현을 무시하지 않으며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남편).

“전과 달리 남편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화를 많이 참는 것 같다.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나도 맞대응하지 않고 남편이 감정이 좀 식으면 남편에게 이야기 하니 큰 싸움으로 되지 않는다. 남편도 금방 미안해하며 자신이 화를 낸 것에 대해 반성을 한다. 이 교육에서 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제일 어려웠다. 하지만 남편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남편이 이해가 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니 싸우면 오래 가지 않고 요즘은 그날, 그날 푸니까 감정이 쌓이지 않아서 좋다.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남편에게 힘내라는 말을 자주 하려고 한다. 남편은 평

소 답장을 안 하는데 저번에는 ‘사랑한다’ 문자를 보내 주니 남편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답장이 와서 놀랐다. 무조건 참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행동했었는데 아닌 것 같다” (어느 아내). ■

비폭력 대화의 4 단계

1. 관찰 :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여 관찰한 것만을 표현한다.
2. 느낌 : 위의 관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3. 욕구 : 그러한 느낌을 일으키는 욕구, 가치관을 찾아낸다.
4. 부탁 :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한다.

<에과도르 선교 > 23페이지에서 계속

이번에 함께 가셔서 찬양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리디아 권사님이 ‘마르코’ 목사님이 데모 때문에 11시간 30분 동안이나 걸어서 수업에 참석하신 것을 보고 감동이 되어 ‘마르코’ 목사님의 박사과정 학비 전액(1000불)을 장학금으로 약정하셨습니다. 한 달에 25불씩 3년간 내실 것입니다. 즉 한 달에 25불씩 3년간 후원하시면 한 분의 박사를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Pastor Dong S. Lim

10620 N. Washington St., Northglenn, CO 80233
720-371-1722

dslim3927@hotmail.com * FaceBook ‘Dong Lim’
에서 사진이나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토막글

초라한 기도



레이건 대통령이 즐겨 쓰던 농담이 있다. 한 주일 학교 어린이가 산에서 곰을 만났다. 도망갈 수도 없어 아이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 기도하였다. “하 나님, 이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눈을 떠 보니까 곰도 마주 앉아 기도하고 있었다. “야아! 기도가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날 줄은 몰랐어!” 하고 기뻐하니 곰이 말했다. “너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나는 식사 기도를 한거야.”

레이건은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농담을 사용하였으나 기도도 여러 가지이다. 이 곰처럼 식사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의 요구만을 위한 기도라면 얼마나 초라한 기도인가!

출처: 현대 예화 사전 (최효섭 저) ■

선교지 소식

인도 유명자 선교사가 전하는 코로나 소식



유명자
인도 선교사

〈인도 유명자 선교사로부터 김기천 목사님 앞으로 온 편지입니다.〉

샬롬,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전까지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와 식량을 나누고 다녔다면 지난 한달은 코로나와 싸우느라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룹메일은 핸드폰에 입력이 안되고 탭으로 보내고 있는데 탭에 얹아서 글을 쓸여력이 마음이 바쁘고 슬픈날들이었습니다. 작년 1년동안은 지인중에 코로나를 앓거나 돌아가신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이들 친구아빠, 동역자들, 그의 가족들, 여행지에서 만난 친구들의 부모님,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코로나를 많이 앓고 있어서 매일매일이 죽음의 길을 지나는 것 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망소식을 듣고 기절을 하기도 했다가 밥을 먹으며 울기도했다가 길을 건다가 주저 앉고 영영 울고... 그러면서도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건강하다는 마음으로 삼세끼 밥을 먹고 코로나에 좋다는 음식과 약을 먹었습니다. 매일 생사를 확인하는 전화와 메세지가 오고, 저도 인도의 지인들에게 잘 지내냐는 연락을 매일 하고 살았습니다. 고아에 있을때부터 세계의 요가도시라 불리는 리시케시 근처 하리드와르라는 곳에서 12년만에 열린 힌두교 축제는 매일매일 힌두교 성자들과 힌두교들로 가득했고 그것이 한달 두달 세달 되면서 북인도 델리를 중심으로 대도시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 교민한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희와 동역하는 이충식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이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산소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지 이틀 방치 되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응급실에 몇시간만 일찍 갔어도 사실수 있었는데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해서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과 그 세자녀는 아직도 회복중입니다. 첫째아이만 아버지 장례식을 참여했는데 제 아이

윌리엄과 같은반 친구여서 모든 일이 남일 같지가 않아서 정말 그 가족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고 아직도 충격으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이 그동안의 모든 건강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선교사 자녀학교에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코로나로 입원을 했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거나 사역지에 계시서 여기 있는 제가 도시락을 싸서 한시간 넘는 병원에 다니면서 갖다주고 코로나 병동의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매일 부탁을 하느라 매일 녹초가 되어 밤에 돌아왔습니다. 아직 몇명 아이들이 병원에 있지만 학교도 문을 닫아 아이들이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픔과 고통은 둘째치고 치료를 받을 병원과 병실이 없다는 현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병원리스트를 받아 전화를 걸고 또 걸어도 받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병원이 만원이라 다 죽어가는 병자를 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병원앞 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병원에 있어서도 산소기 치료를 못받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한병원에서 죽고, 산소가 실수로 새어나가 병원에 산소가 없어서 수십명이 죽고... 소셜미디어에는 약과 산소기, 병원과 응급실, 심지어 음식을 찾는 사람들 소식으로 넘쳐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선교사님 부부가 산소포화도가 80프로로 내려가 병원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절망과 분노, 슬픔과 공포가 어지럽게 계속해서 휩쓸고 있는 인도에서 선교사님들과 한국인들은 특별기를 타고 떠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채 비행기를 타야하는 마음, 지금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돌아오지 못한채 3차 파동기가 온다는 암울한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길에 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가볍게 지나갈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스크 두개 쓰고 매순간 손을
소독하고 이전보다 철저하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길바닥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유일한 소망은 주님과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두렵지 않습니다.

곧 기도편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빵,

VOA 뉴스

인도, 코로나 신규감염 · 사망 다시 최고치



6일 인도 뭄바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임시 병동이 설치됐다.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41만 2
천 262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3천 980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이 5일 정점을 찍고
주춤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런 관측이 빗나간
것입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인도 타임스' 신문은 인도 남부
첸나이 마을의 국립대학병원에서 어젯밤(5일) 병상에
공급되는 산소 압력이 갑자기 떨어져 환자 1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주 인도의
코로나 감염자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감염 사례의
절반가량을, 사망자는 전 세계 수치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정부 당국자는 의료용 산소 수요가 지난달보다 7
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감염률이 가장 높은 서부
연안의 유명 관광지인 고아주에서는 최근 몇 주간
코로나 검사에서 2명 중 1명꼴로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수도 뉴델리 등에 코로나 확산이 집중되고
있지만, 13억 인구의 약 70%가 거주하는 시골 지역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는 주요 백신 생산국이지만 전체 인구의 2.1%
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VOA 뉴스 2021.5.6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일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PCA)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 월간 홈페이지: www.abqnim.com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Zoom) 10:00 am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알버커키 Albuquerque</p>	<p>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p>	<p>식당 Korean Restaurant</p>	<p>식품점 Korean Grocery</p>	<p>주택용자 Loan Officer</p>
<p>건축/페인트 Painting</p>	<p>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p>	<p>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p>	<p>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p>	<p>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p>
<p>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p>	<p>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p>	<p>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김미경 Mi Kyong Kim 6745 Academy Rd,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208-4961 Cell: (505) 379-2944 mikyong.kim@flagstar.com Flagstar Bank</p>
<p>공인회계사 CPA</p>	<p>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p>	<p>Asahi Expres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중재서비스</p>
<p>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p>	<p>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p>	<p>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Ste D ABQ (505)766-9405</p>	<p>이발소 미장원 Hair Cut</p>	<p>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교회 Church</p>	<p>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p>	<p>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p>	<p>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p>	<p>치과 Dental Clinic</p>
<p>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p>	<p>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p>	<p>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p>	<p>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p>	<p>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p>
<p>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p>	<p>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p>	<p>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p>
<p>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p>	<p>변호사 Law Firm</p>	<p>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p>	<p>자동차정비 Auto Repair</p>	<p>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p>
<p>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p>	<p>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p>	<p>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p>	<p>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p>	<p>태권도 TaeKwonDo</p>
<p>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13804 Spirit Trail pl. NE ABQ (505-730-3614)</p>	<p>부동산 Realtors</p>	<p>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p>	<p>태권도 TaeKwonDo</p>	<p>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p>
<p>단요가 Dahn Yoga</p>	<p>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p>	<p>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p>	<p>태권도 TaeKwonDo</p>	<p>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틀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p>	<p>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p>	<p>태권도 TaeKwonDo</p>	<p>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p>
<p>리커스토어 Liquors</p>	<p>세탁소 Dry Cleaners</p>	<p>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p>	<p>태권도 TaeKwonDo</p>	<p>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p>
<p>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p>	<p>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p>	<p>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p>	<p>태권도 TaeKwonDo</p>	<p>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p>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한의사 Acupuncture</p> <p>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p>	<p>교회 Church</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p>	<p>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p>	<p>식품 Korean Grocery</p> <p>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p>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p>	<p>병원 Clinic</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p>	<p>Kelly/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p> <p>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p>	<p>치과 Dentist</p> <p>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p>
<p>화원/원예 Nursery</p> <p>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p>교회 Church</p> <p>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p>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p>	<p>화밍톤 Farmington</p>
<p>호텔 Hotel</p> <p>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p>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치과 Dental Clinic</p> <p>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p>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p>교회 Church</p> <p>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p>
<p>라스베가스 Las Vegas</p>	<p>미장원 Hair Salon</p> <p>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p>	<p>산타페 Santa Fe</p>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p>상점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p>치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4775</p>	<p>손톱미용 Nails</p> <p>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p>	<p>식당 Restaurant</p> <p>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p>	<p>교회 Church</p>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p>라스크루세스 Las Cruces</p>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4775</p>	<p>변호사 Law Firm</p> <p>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p>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p> <p>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4775</p>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p> <p>카페/ 선물 Cafe/Gift</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p>	<p>리오란초 Rio Rancho</p>	<p>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p> <p>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교회 Church</p> <p>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p>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4775</p>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1년 5/6월호
 발행일 : 2021.5.8.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말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E-mail
 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0K41143
NM Lic. 17684619
carlitos3840@gmail.com

은퇴플랜 생명보험 401K Rollover
학자금 롱텀케어 택스절세플랜

당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Check Points:

- 평생을 보장받는 은퇴연금을 준비했나?
- 중병이나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있는가?
- 세금 절세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Call Today!

213-321-87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